

# 당선 교육감 13명 대입 정시확대 반대

### 교육연대, 2022년 대입개편안 후보자 의견 조사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부분 찬성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중 최소 13명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대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32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가 실시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대입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당선인중 최소 13명이 2022년 대입개편과 관련해 정시확대에 반대했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감 선거에 앞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입개편과 교육정책

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감 후보 61명중 28명이 의견을 보내왔고 이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13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들 교육감들은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비중을 낮추고 정시는 없애자"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수능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새 정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며 "수능절대평가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수능 위주의 대입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주입식 암기 수업, 끝없는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았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과 내신을 근거로 진학이 이뤄져야 한다"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상대평가는 4차산업시대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수하 절대평가만 도입해도 사교육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요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교육감 당선자들의 대입결과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1000인 공동선언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입개편 교육정책 관련 회신서를 보낸 교육감은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13명이다.

/뉴스

## 군산대 11대 공직협 회장에 최정범씨 당선

### "경쟁구도가 아닌 화합구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

군산대학교 제 11대 공무직원협회의회장이 최정범씨(52, 평생교육원)가 당선되었다.



18일 군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산대학교 신본부 2층에서 총 선거인 158명 중 1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최정범 신임회장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제 11대 공직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최정범 신임회장은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 구성, 상위직급 진입제도 개선, 안정화된 인사제도 도입, 열린 운영위원회 구성, 장기근로자 포상제도 개선, 1인 1동호회 활성화 추진, 직원 보컬 밴드 결성, 국립대학 자율성 강화 및 총장 선출권 확대, 노동활동 자율성 확보,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정범 신임회장은 "앞으로 공

무원직장협의회장 선거를 추대 형식으로 개선해 경쟁구도가 아닌 화합구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협회장직이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시한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범 11대 신임회장은 1992년 5월 군산대학교에 부임하여 26년 동안 군산대학교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자체 모범 공무원상, 무인경비구역 유공자상, 국민교육발전 유공자상, 우수직원 표창 등을 수상했다. 제 1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산대지부 조직위원, 제 2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대의원, 군산대지부 조직강화부장, 제 3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산대지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정범 신임회장은 오는 2020년 2월까지 군산대학교 공직협회장직을 맡아 대학발전 및 직원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노동자들과 대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진행중인 현장노동청에서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전북대,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초청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융합사업단(단장 이화교)과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학장단을 초청해 19일 전북대 산학협력단 별관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우간다 간 아프리카 소 품종 공동 연구와 우간다 낙농사업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교류를 위한 것

또한 향후 KOICA에서 진행하는 IBS 민간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

전북대는 2016년 마케레레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간다 간 지속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김재훈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와 면접시험 시

행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교육행정 133명, 사서 14명, 공업 6명, 공업 6명, 시설 10명, 공업 2명, 공업 2명, 시설 3명, 운전 37명, 총 213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안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면접시험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 1층 회의실로 가져 제출해야 하며, 면접시험은 7월 11일에 실시하고, 7월 20일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김재훈기자

## "직선 3기, 교육부와 관계 협력 원칙"

### 김승환 교육감 "전 정권 교육적폐 하루빨리 정리해야"

오는 7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직선 3기에는 교육부와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선 3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께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면 좋겠다. 저와 전북교육청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 적폐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던 전교조 범위노조 처분 교원평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저질렀던 교육적폐들을 교육부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 범위노조 처분과 관련해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총리 산하에 고용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범외노조 처분 취소) 지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6·13 교육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또 한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쟁교육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 안된다. ▲협력교육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교육은 교육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교육계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라고 김 교육감은 설명했다.

/김재훈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